

'코로나시대' K리그, 거리두기 완화로 유관중 개막 준비

프로축구 오는 27일 개막 예정... "방역 지침 맞춰 관중 입장 계획"

"지난해 경험 있어 차질 없을 것...관중과 함께 시즌 시작 매우 기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성공적으로 리그를 마친 프로축구 K리그가 유관중으로 새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 15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달 27일 개막하는 K리그1(1부)과 K리그2(2부)의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다.

방역 지침에 따라 2단계에선 프로 스포츠 관중 입장이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까지 가능하다. 1.5단계에선 30%까지 늘어난다.

지난주까지 수도권의 경우 2.5단계가 유지돼 관중 입장이 불가능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방만 2단계로 제한돼 K리그 전체 유관중 개막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막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K리그가 관중과 함께 새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조만

간 각 구단 실무자들과 유관중 개막에 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단계별 방역 지침에 맞춰 유관중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K리그는 2월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5월8일에야 막을 올렸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가에서 축구가 멈춰 선 가운데 K리그는 전 세계 주요 축구리그 중 가장 먼저 개막해 화제가 됐다.

당시 K리그의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은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 46개국에 공유되기도 했다. 또 월드컵 포럼을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등 빅 리그에도 소개됐다.

시즌 중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유관중과 무관중을 오가는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매뉴얼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시즌을 완주했다.

K리그의 유관중 매뉴얼은 이번 시

즌에도 가동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또 전 좌석을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받는다. 전자출입명부가 운영되고, 구단은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비치해 발열 증상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연맹 관계자는 "각 구단의 좌석 배치 상황에 따라 최대 수용인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30%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육식 음원이 금지되고 관중석의 음식물 취식이 할 수 없다. 지역 간 이동을 막기 위해 원정 응원도 금지한다.

구단들도 유관중 개막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구단 관계자는 "지난 시즌 경험이 있어 준비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관중과 함께 시즌을 시작한다면 매우 기쁜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별 시즌권 정책도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변화했다.



시즌 도중 무관중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구단은 연간회원권 대신 멤버십과 티켓북 제도 등을 도입했다.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 제주 유나이티드 등은 멤버십을 운영한다. 가입자에게 입장권 선예약 권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FC, 포항 스틸러스, 서울 이랜드FC 등은 홈 경기 예매권을 묶은 티켓북을 판매한다. 성남FC, 수원FC, 대전 하나시티즌, 울산 현대 등도 티켓북을 판매할 예정이다.

일부 구단은 연간회원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안산 그리너스와 부천FC, FC안양 등이 카드형 시즌권을 판매한다.

대구FC, FC서울, 수원 삼성, 경남 FC, 김천 상무, 부산 아이파크, 전남 드래곤즈, 충남 아산은 경기 당일 입장권만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시즌 개막일이 늦춰지면서 27라운드로 축소됐던 K리그1은 38라운드로 정상 복귀한다. K리그2도 36라운드로 시즌을 완주한다는 계획이다.

김민경기자

두 번째 올림픽 바라보는 박인비 "꿈 이루는 한 해 되길"

116년만에 부활한 2016년 올림픽서 금획득...2연패 목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골프여제' 박인비의 머릿속에는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인비와 올림픽의 인연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인비는 116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미뤄진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박인비는 2연패 달성을 노린다. 올해 세운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다.

박인비는 16일 오후 후원사인 던롭 스포츠코리아가 마련한 언택트 미디어에 참가해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후 5년 만에 다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시즌을 치르겠다고 생각한지 3년이 됐다"고 웃었다.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취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박인비는 선수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생각이다. 박인비는 "여러 상황들이 좋아져 올림픽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많은 선수들이 기다리는 만큼 상황이 빨리 정리

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같은 목표다. 최선을 다하면서 열린다는 기쁨에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리우데자네이루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벌써 5년이 됐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다. 2016년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며 "선수 생활 중 두 번의 올림픽 출전은 쉽지 않다.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기대했다.

올림픽 골프에는 남녀 각각 60명이 출전한다. 국가당 2명 출전이 원칙이지만, 세계 랭킹 15위 이내 경우 국가당 최대 4명까지 나설 수 있다. 여자골프 출전권은 6월 말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현재 고진영, 김세영에 이어 세계 랭킹 3위를 달리고 있는 박인비는 현 순위를 여름까지 유지할 경우 2연패를 위한 선과제인 출전권 획득에 성공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를 기반으로 활약 중인 박인비는 올해도 1승 이상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그의 2021시즌 첫 대회는 3월로 예정된 기아클래식이다. 현재 박인비는 지난해 좋았던 기억을 유지하면서 퍼팅 등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인비는 "작년에는 샷이 좋았고



정확도도 괜찮았는데 퍼팅이 아쉬웠다. 올해는 리듬과 스트로크를 일관되게 하려고 퍼팅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다"면서 "2020년 20승을 채웠는데 2021년 21승 이상을 거두는 것이 좋은 목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던롭의 썬시오 클럽과 스틱스 공을 사용 중인 박인비는 "다 큰 제품으로 치는 내 자신이 상상이 안 된다"면서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골프로 박인비는 "올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건강을 유의하면서 매우 좋은 성적,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 합천 설날장사씨름대회 3체급 석권

장성우 백두장사·오창록 한라장사·허선행 태백장사 등극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경남 합천에서 열린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와 한라장사, 태백장사 등 3체급 장사에 등극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11일 펼쳐진 태백장사 결정전에서는 올해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새로 영입된 허선행 선수가 화려한 기술에 앞세워 수원시청 문준석 선수를 3대 2로 극적으로 승리하며, 개인통산 2번째 태백장사에 올랐다.

이어 대회 세째날인 13일에는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오창록 선수가 웅인백옥쌀 유형원 선수를 3대 1로 가뭇게 제압하면서 개인통산 7회째

우승, 한라급 절대강자로 우뚝섰다.

14일에는 2회 연속 천하장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장성우 선수가 관록의 울주군청 경진진 선수를 3대 1로 압도적인 실력 우위를 보이면서 또 한번 백두장사를 차지했다.

허선행 선수와 오창록 선수, 장성우 선수는 탁월한 기량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화려한 기술씨름의 진수를 보이면서 전국의 씨름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씨름계 아이돌스타인 태백급의 허선행 선수와 금강급의 김진호 선수를 신규 영입해 선수층을 보강했다.

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의

예능 방송출연 및 각종 민속씨름대회 참여로 긍정 홍보와 함께 영암의 브랜드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 2017년 창단 이후 이번 대회까지 천하장사 2회를 포함해 34회 장사 배출, 전국체전 금메달 2개, 단체전 우승 3회 등 총 39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씨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창단 후 4년 만에 태백에서 백두까지 모든 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씨름판의 절대강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한국씨름과 영암군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양현종 MLB데뷔 시즌 예측...ERA 4.13·66이닝·65K

미국 야구 통계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닷컴 전망



텍사스 레인저스와 스플릿 계약을 맺은 양현종(33)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한 양현종이 첫 시즌 4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야구 통계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16일(한국시간) 양현종을 포함한 텍사스 선수들의 2021시즌 예측 성적을 소개했다.

팬그래프닷컴은 아직 보적이 확정되지 않은 양현종을 일단 선발 투수로 분류했다. 등판 경기수를 11경기로 책정한 것에 비춰볼 때 풀타임이 아닌 대체 선발로 여기는 듯했다.

이들이 내다본 양현종의 예상 성적은 66이닝, 61피안타, 평균자책점 4.13이다. 선발 투수 임무 완수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펠리티스

타트(60이닝 3자책점 이하) 평균자책점이 4.5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현종의 예측 평균자책점은 크게 나쁜 수치가 아니다. 볼넷은 21개, 탈삼진은 65개로 책정했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는 1.2다.

다만 팬그래프닷컴은 양현종이 승패를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텍사스 투수 중 승패 모두 '0'인 이는 양현종 뿐이다.

2007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 줄곧 KIA 타이거즈에서만 뛴 양현종은 지난 13일 텍사스와 스플릿 계약을 맺고 미국 진출의 꿈을 이뤘다. 메이저리그 승격시 양현종은 130만 달러를 받는다. 양현종은 친정팀 KIA 스프링캠프에서 몸을 만든 뒤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뉴스

유희관, 마라톤 협상 끝 두산 잔류...1년 최대 10억원

2009년 입단 후 한 팀서만 뛰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베테랑 좌완 투수 유희관이 팀에 남는다.

두산은 16일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취득한 유희관과 계약기간 1년에 연봉 3억원, 인센티브 7억원 등 총액 1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두산을 통해 프로에 입단한 유희관은 지난해까지 한 팀에서만 뛰며 통산 266경기 97승62패 평균자책점 4.44를 기록했다. 97승은 두산 좌완 투수 최다승 기록이다.

지난해에는 10승11패로 KBO리그 역대 4번째 8년 연속 10승을 달성했다. 생애 첫 FA 자격을 얻은 유희관은 만 35세의 적잖은 나이와 지난해 중반 부진 등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희관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출가분한 마음"이라며 "몸 상태를 빨리 끌어 올리는 게 목표다. 캠프에 늦게 합류하는 만큼 더 집중해 시즌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계약 문제로 스프링캠프 출발이 늦어진 유희관은 당분간 1군이 아닌 2군 캠프에서 몸 만들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